

숫자 넘어선 이름들, 흔들린 시즌 속 빛났다

KIA 2025 시즌결산

〈5〉대기록편



최형우 누적·김선빈 헌신·양현종 버팀
최, '기록의 사내'가 쓴 또 한 줄의 역사
김, 한 유니폼으로 완성한 시간의 무게
양, 매 경기 역사 업데이트하는 사나이

팀은 흔들렸지만, 기록은 흔들리지 않았다. 2025년 KIA의 시즌은 우승보다 묵직한 숫자, 결과보다 과정, 성적보다 이름이 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형우·김선빈·양현종 선수는 어려운 시즌 속에서도 KBO 역사를 다시 썼다.

●최형우

‘해결사’ 최형우의 기록 행진이었다. 지난 9월6일 창원NC파크. 최형우는 NC전에서 KBO 역대 최초로 통산 4천400루타를 돌파했다. 2회 솔로 홈런, 4회 안타. 이 두 번의 타격으로 그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날 통산 2천300경기 출장(역대 3번째)도 함께 채웠다. 한 경기에서 두 개의 역사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KBO 역대 네 번째이자 최고령 400홈런(5월5일 기용전), 18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2번째)과 통산 2천500안타(3번째)를 동시에 세웠다(5월27일 기용전). 이어 KBO 최초 1천700타점(6월24일 기용전), 18시즌 연속 100경기 출장(최초)과 통산 1천3004사구(3번째)를 더했다(8월12일 삼성전). 기록은 쌓였고, 한계는 사라졌다. 불혹을 훌쩍 넘긴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김선빈

김선빈도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올 시즌 통산 1천707경기 출장을 달성했다. 해태와 KIA를 통틀어 구단 최다 출장이다. 프랜차이즈의 뿌리를 잇는 기록이다. 17시즌 동안 한 유니폼만 입었다. 짧은 체구지만, 존재감은 가장 길었다. 부상과 기복에도 꾸준한 내구성을 과시했고, 지난해에는 한국시리즈 MVP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다. 올해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한결같은 길을 걸었다. 김선빈의 기록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다. 한 시대를 통째로 대표한 시간의 무게다.

●양현종

마운드에선 ‘베테랑’ 양현종이 역사를 다시 썼다. 9월20일 NC전에서 KBO 최초로 11시즌 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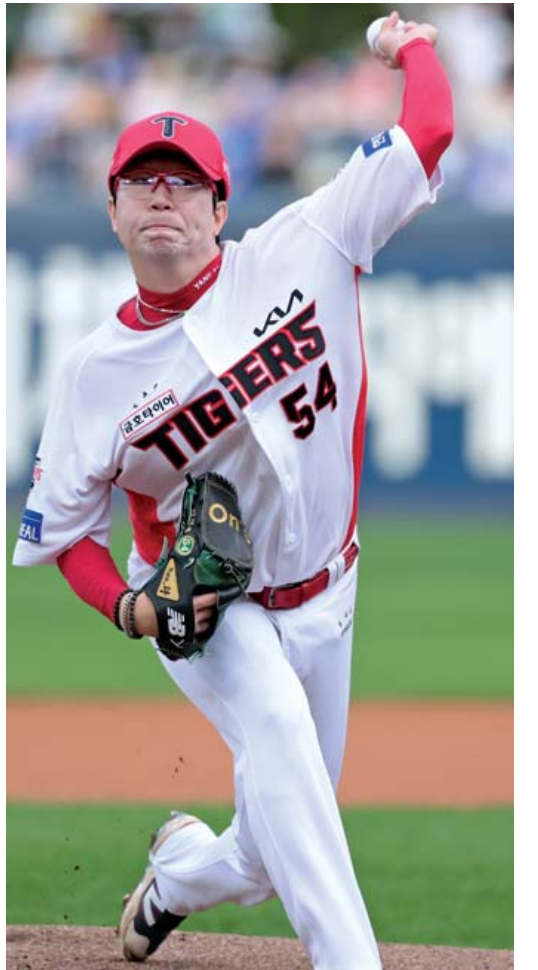
최형우

100타점진의 금자탑을 세웠다. 이강철(kt 감독)과 장원준(전 두산)이 기록한 10시즌 연속 100타점진을 넘어선 순간이었다. 이 꾸준함을 바탕으로 그는 통산 2천185타점진, KBO 역대 1위를 굳게 지키고 있다. 이닝에서도 흐름이 뚜렷하다. KBO 최초 11시즌 연속 150이닝(9월27일 NC전), 역대 두 번째 12시즌 연속 100이닝(7월30일



김선빈

두산전), 통산 2천600이닝 돌파(7월24일 LG전) 등이 그 예다. 특히 내년엔 100이닝을 더 채우면, 송진우의 13시즌 연속 100이닝과 타이거가 된다. 이제 그 기록을 바꿀 수 있는 건, 그 자신뿐이다. 이처럼 한국 야구의 한 페이지가 그의 손끝에서 이어지고 있다. 양현종은 매 경기, 새로운 숫자를 더해간다. 그의 등판은 단순한 투구가 아니다. 리그 역사



양현종

〈사진=KIA 타이거즈 제공〉

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이다. 노쇠화는 찾아왔지만, 그만의 시간은 여전히 뜨겁다. 2025년 KIA의 기록은 결국 이렇게 남았다. 최형우 누적, 김선빈 헌신, 양현종 버팀.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팀의 품격을 지켰다. 그 이름들이 모여, 다시 하나의 역사가 됐다. 그리고 그 역사는, 내년 봄의 희망으로 이어진다. /주홍철 기자

안산, 女양궁 ‘왕중왕’…3년 만에 월드컵 파이널 우승

강채영 3위…男 컴파운드 김종호 6위

안산(광주은행)이 올해 양궁 왕중왕을 가리는 2025현대 양궁 월드컵 파이널에서 우승했다. 안산은 19일 중국 난징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 리커브 결승에서 쉬신즈(대만)를 5-0(6-5(28-28 29-25 25-27 29-25 27-28<8-7>))로 물리쳤다. 2022년 멕시코 틀락스칼라 대회에서 우승한 안산은 이로써 생애 두 번째 월드컵 파이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산은 올해 2차 대회 5위, 3차 대회 2위, 4차 대회 6위 등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 틀락스칼라 대회 이후 3년 만에 파이널 무대로 복귀했다.

안산은 지난날 광주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따낸 데 이어 이번엔 파이널 챔피언으로 복귀하면서 사상 첫 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올랐던 2020 도쿄 올림픽(2021년) 이후 최고의 해를 만들었다. 광주 세계선수권 여자 개인전 우승자인 강채영(현대모비스)은 3위 결정전에서 케이시 코폴드(미국)를 6-2(30-26 28-24 27-28 30-27)로 물



중국 난징에서 열린 2025현대 양궁 월드컵 파이널 대회에 출전한 안산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연합뉴스

리치고 동메달을 따냈다.

앞서 2019년 모스크바 대회와 2023년 멕시코 에르모시요 대회에서 우승한 강채영은 통산 3번째 월드컵 파이널 메달을 거머쥐었다. 남자 컴파운드에 출전한 김종호(현대제철)는 6위로 대회를 마쳤다.

월드컵 파이널은 한 해 4차례 열리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이 출전하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다. 남자 리커브 김우진(청주시청)과 김제택(예천군청)이 이번 대회에 결장한 가운데 3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했다. /연합뉴스

‘세계 최강’ 안세영, 야마구치에 설욕전

덴마크 오픈 배드민턴 결승행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덴마크오픈 결승에 올라 올해 8번째 국제대회 우승에 성공 다가가았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8일(한국 시간) 덴마크 오픈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덴마크오픈 준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3위)를 2-1(16-21 21-10 21-9)로 제압했다. 안세영과 상대 전적이 15승 15패로 팽팽한 야마구치는 안세영의 강력한 라이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상대다. 올해 초반 3차례의 맞대결에서는 안세영에게 완패했지만, 지난날 코리아오픈 결승에서 안세영을

잡았다. 2년 만에 돌아온 안방 무대 코리아오픈에서 씁쓸한 패배를 떠안았던 안세영은 이날 진담승을 거두고 지난 대회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시작은 불안했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부터 4점을 연속으로 내주며 끌려갔고, 끝내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첫 게임을 내줬다. 그러나 2게임에서는 4-4 동점 이후 연속 득점으로 앞서 나가며 일방적인 흐름을 만들었고, 3게임에서는 시종일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승리를 거뒀다. 올해 10개 국제 대회에 나서서 7번 우승한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8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된다. 안세영은 올해 3개의 슈퍼 1000 시리즈(말레



18일(현지시간) 덴마크 오픈의 위스케 벅 아레나에서 열린 덴마크 오픈 배드민턴 토너먼트 여자 싱글 준결승전에서 한국의 안세영이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EPA=연합뉴스

아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 3개의 슈퍼 750 시리즈(인도오픈·일본오픈·중국오픈)와 슈퍼 300 대회 오름레앙 마스터스에서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손흥민, MLS 정규리그 최종전서 9호골

팀 500호골 주인공…LAFc-콜로라도 2-2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FC의 ‘골잡이’ 손흥민(33)이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시즌 9호 골을 터트렸다. 손흥민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커머시티의 디스 스포팅 굿즈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래피즈와의 2025 MLS 정규리그 34라운드 최종전 원정에서 0-0으로 팽팽하던 전반 42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태극마크를 달고 이달 A매치 2연전에 출전 하느라 앞선 2경기에 결장했던 손흥민은 3경기 만에 나선 정규리그 경기에서 시즌 9호 골을 넣었다. LAFc는 후반 17분 골키퍼 위고 요리스의 패스 실수로 동점 골을 내준 뒤 후반 42분 역전 골마저 허용하며 1-2로 끌려가다 후반 45분 극적인 재동점골이 터지며 2-2로 비겼다.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비긴 LAFc는 승점 60을 기록, 샌디에이고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이상 승점 63)에 이어 3위로 2025 MLS컵 플레이오프(PO)에 나서게 됐다. 손흥민은 10경기에 출전해 9골, 3도움(MLS



18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커머시티의 디스 스포팅 굿즈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래피즈와의 경기 후반전에 손흥민이 드리블을 하고 있다. AFP/AFP=연합뉴스

사무국 기준)으로 데뷔 시즌 정규리그를 마쳤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최민정, 2차 월드투어 1,000m·계주서 銀

캐나다 코트니 사로에 연거푸 밀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2차 대회 셋째 날 여자 1,000m와 여자 3,000m 계주에서 각각 은메달을 땀다. 두 종목 모두 결승 레이스 막판 캐나다 코트니 사로에게 밀려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다. 최민정은 19일(한국시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셋째 날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28초166의 기록으로 사로(1분27초886)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끊었다. 레이스 초반 후미에서 기회를 엿보던 최민정은 결승선을 5바퀴 남기고 속도를 올려 2위로 올라섰고 이후 선두인 사로와 치열

한 경쟁을 펼쳤다. 그러나 최민정은 마지막 바퀴에서 사로와 거리를 좁히지 못했고 큰 격차를 보이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어진 여자 3,000m 계주 결승도 아쉬웠다. 최민정은 김길리(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심석희(서울시청)와 함께 출전해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과 경쟁했다. 레이스는 결승선 8바퀴를 남기고 3위로 달리던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지면서 한국과 캐나다,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그러나 마지막 주자인 최민정이 결승선 2바퀴를 남기고 마지막 곡선 주로에서 캐나다 마지막 주자 사로에게 인코스를 내줘 역전을 허용했다. 한국은 4분7초517, 캐나다는 4분7초341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남자 대표팀은 모두 메달을 따지 못했다. /연합뉴스